진도군, 낙후된 진도읍 도시재생 본격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으로 64억5000만원 확보…옥주골 어울림센터 조성

진도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구)우체국 부지가 선정되어 2022년까지 64억5,000만원 투입, 활력이 넘치는 진도읍 옥주골 만들기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생활 체감형 SOC 확충으로 쾌적한 중심 공간을 구축하고 함께 돌보는 주민 공동체 형성으로 생활보듬 공동체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주거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보배섬 진도군의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구)진도우체국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옥주골 어울림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옥주골 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진도읍 도심 경제활성화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아 재정·기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은 9일 장날을 맞아 강진읍시장에서 300여 명의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진읍시장 동절기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강진군, '안전하고 화재 걱정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홍보 캠페인 실시

전통시장 내 불피움 행위 금지 및 상인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진군은 9일 장날을 맞아 강진읍시장에서 300여 명의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진읍시장 동절기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홍보 캠페인은 최근 추워진 날씨로 전열기구 사용과 시장내 불피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내 불피움 행위 금지, 시장내 노후 콘센트 및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자제, 겨울철 소화기 관리 및 사용방법을 중점 홍보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면서 전통시장 상인 인식개선도 동시에 추진했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시장 내 모닥불 등 불피움 행위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화재예방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말까지 강진읍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공모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활동과 화재 취약지점에 대한 현장 안전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코로나19 생활방역 아이디어 발굴해 확산 막는다

실현 가능한 방역 아이디어 최종 25건 선정

완도군은 지난 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도형 저인망식 생활방역 대책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져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됨에 따라 생활방역 정착 및 대책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이디어는 1차로 부서별 집중 토론 및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현 가능한 방역 대책 94건을 발굴하였고, 2차로 최종 25건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장소별 지정된 고유번호로 전화하여 출입 인증을 완료하는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관리 서비스', ▲다중집합장소 방역수칙 자동 방송 도입, ▲피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 수전 설치, ▲음식점 등에 투명 롤스크린 설치, ▲음식점 항균 젓가락 이용,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도서주민 하이패스 승선 시스템 구축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청정완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생활방역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가족친화 우수기관 여성가족부장관상

장흥군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정책 동아리 운영, 청렴·친절·소통 직원 현장 워크숍, 남성요리교실, 공직자 여름휴가 장흥 8경 산 건강샷 올리기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운영
일과 가정 양립 프로그램도
2022년 11월까지 자격 유지

장흥군은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3회 연속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2년 11월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이 같은 성과가 이어져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거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가정이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해진다"며, "매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 원광전력(주),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2천만원 등 인센티브 제공

2020년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해남 원광전력(주)이 선정됐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직원 복지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20개 기업을 선정,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자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한도 우대, 정년 근속장려금 가산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원광전력(주)은 1988년 창립 이래 전기공사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으며, 2010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R&D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강진군 재난지원금 99% 사용…71억 소비

이승옥 군수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중요한 역할"

강진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한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 72억 원 중 71억 원이 순수하게 강진군에 소비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택시종사자,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종교시설, 유흥주점, 노인일자리사업 등 7종에 대해 총 72억 원을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11월 말 기준으로 약 71억 원이 사용됐다.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은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유흥업소, 귀금속점 및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항공, 고속버스 예매업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강진군의 소상공인을 위해 71억 원이 소비됐다고 해석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타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며 "강진사랑상품권은 오직 강진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에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관내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강진=김영일 기자